

미디어아트, 무용·음악·역사를 품다



융·복합 예술 퍼포먼스 '초월'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 작가와 발레리나 출신의 안무가 조가영씨는 몇년 전부터 미디어 아트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공연을 진행해왔다. 2015년에 첫 작품 '씨름'을 무대에 올린 데 이어 지난해에는 '뉴 폼' (NEW FORMS)을 통해 관객들을 만났다. '뉴 폼'은 호주 현대미술관에 초청돼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진시영·조가영씨와 함께 이번에는 버클리 음대에서 수학한 작곡가 허동혁이 함께 무쳐 융·복합 예술 퍼포먼스 '초월'을 선보인다. 28일 오후 8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한빛홀.

융·복합 공연은 제작비가 만만치 않고 단순한 장르간 결합에 그치지 쉬워 지속 공연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신작을 내 놓는 건 의미있는 도전이다. '초월'은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문화관광재단, 한국전력공사의 후원을 받았다.

'초월'은 미디어아트·무용·음악·역사·전통예술

진시영·조가영·허동혁 공동작업

빛으로 풀어낸 인간의 삶과 역사

내일 나주혁신도시 한전 한빛홀

이 빛의 언어를 통해 하나가 되는 가능성을 시·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세계로 보여준다. 미디어아트와 전통예술, 무용, 음악, 입체음향 시스템, 홀로그래프 등 첨단기술이 함께 어우러진 융·복합예술프로젝트다.

이번 공연은 기존 작품보다 '스토리 라인'에 치중한 게 특징이다. 나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작품으로 연색의 여신을 등장시키고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지난 10월 나주시 금성관에서 개최된 '전라도 정병 천년(D-1) 기념행사'와 연계, 15분 분량의 미디어 파사드 공연으로 선보였던 작품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40분 분량의 공연에서는 첨단 무대 세트와 5.1 채널 입체음향 시스템, 홀로그래프 장비 등을 적극 활용하며 음악 역시 테크노 등 전자음악을 활용해 미래 지향적 의미를 담았다. 또 컨템포러리 발레 등 무용수의 움직임에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작품은 프롤로그를 비롯해 '탄생-어둠', '인간-색', '미래-비상' 등 모두 4장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적으로는 나주의 특화 산업인 천연염색, 왕건과 장화왕후의 사랑이야기로 유명한 완사천 우물 전설, 영산강을 누비는 황포돛배 등 '나주'의 콘텐츠를가 주가 된다.

무엇보다 지역과 세계,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현대, 과학과 예술, 그 경계를 뛰어넘는 다차원 형태의 예술로, '탄생-성장-도약'을 반복하는 인간의 삶과 역사와 미래를 빛의 이야기로 새롭게 이야기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1000원의 행복 프로그램으로 미리 예약하면 1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70-7556-06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6인의 크리스마스 캐롤전

제이콥하우스갤러리 내달 20일까지

윤희환 산타클로스의 모습, 눈 쌓인 교회 풍경, 어둠을 밝히는 따뜻한 촛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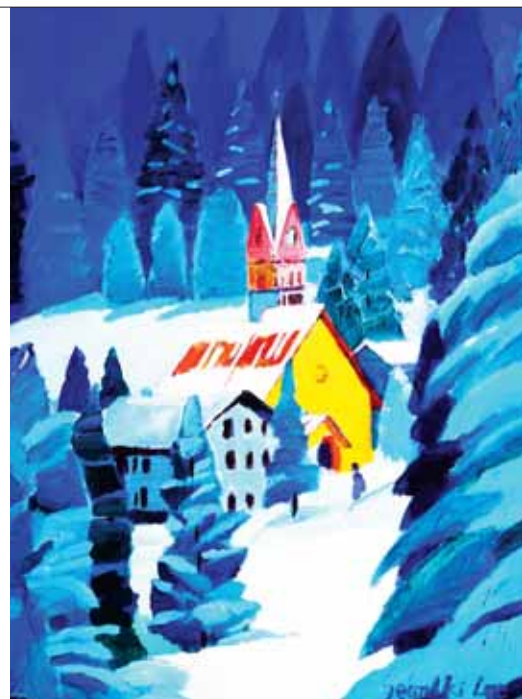
연말 연시 파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시 남구 구성로에 위치한 제이콥하우스갤러리는 내년 1월 20일까지 '6인의 크리스마스 캐롤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서양화가 김해성 작가와 제자 김해란·문화진·이승기·이재남·정정숙씨가 함께 참여해 작품을 선보인다.

지난 9월 광주문화재단 인근에 문을 연 제이콥하우스 갤러리는 그림을 감상하며 커피와 주류 등을 마실 수 있는 갤러리 카페다. 문의 010-2633-890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승기 작 '성탄의 새벽중'

위즈덤하우스 고전 시리즈

'완역에서 완독까지' 출간

출판사 위즈덤하우스가 새로운 고전 시리즈 '완역에서 완독까지'를 내놓았다. 원전의 체계와 의미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번역자가 제안하는 '어떻게 끝까지 읽을 것인가'를 소개함으로써 고전을 완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리즈다. 시리즈의 첫 책으로 마키아벨리의 고전 '군주론'이 나왔다. 김종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가 다양한 영문판본과 이탈리아어 판본을 참고해 번역했다. 208쪽, 1만4000원.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은 박은영 경북대 영문과 교수가 번역했다. 박교수는 일단 한 번 통독을 한 후 관심가는 주제의 장부터 읽어보라고 소개했다. 536쪽, 1만6000원.

출판사는 앞으로 맹자와 논어 등을 '완역에서 완독까지' 시리즈로 펴낼 예정이다.

/연향뉴스



'문학들' '시와사람' '광주시문학'

지역 계간·동인지 한해 결산 겨울호 발간

열악한 문단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동인지가 한 해를 정리하는 결과물을 잇따라 펴냈다. '문학들', '시와사람', '광주시문학'은 최근 2017년 겨울호를 발간, 문학에 대한 열정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냈다.

50호를 맞은 '문학들'은 특집으로 '촛불 이후의 한국소설'을 다뤘다. 김미정 평론가는 '흔들리는 재현·대외의 시간'에서 정치적 올바름의 프레임 이면에서 작동하는 독자들의 욕망 변화를 읽어낸다. 신선별 평론가는 '숙의하는 소설들'을 주제로 최근 원자력 발전소 건설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한 '숙의 민주주의' 가능성과 한계를 거론한다.

광주를 '더 많은 민주주의' 담론을 매개하는 대표적인 기표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의도로 마련한 기획 '뉴 광주 리뷰'는 이진경 서울과기대 교수와 박윤희 영화비평가의 글을 수록했다. 광주에 대한 깊은 철학적 사색을 담은 에세이와 '오월 영화사'에 대한 비판적 점검의 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말 연초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은 요즘이다. '시와사람'(86호)은 '시와 여행'이라는 주제로 특집 좌담을 마련했다. 이승희 주간 사회로 강영은, 김추인, 박미선, 이선식 시인이 여행과 시에 대한 아카데미한 단상을 펼쳐냈다.

'시와사람 초대석'에는 김상호 시인을 만났다. 200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김 시인은

시집 '모르는 적', '우리의 죄는 야옹' 등의 시집과 사진에세이 '한 사람을 건너왔다' 등을 펴냈다. '끓을 수 없는 땃줄'이라는 '나의 시론'에서 시인은 "세상은 땃줄을 통해 물려받는 슬픔의 끝없는 순환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이어져 있는 것들은 언젠가 떼어내야 할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책에는 강유정, 박관서, 최연수 시인 등의 작품과 강경호 발행인의 기획, 문학과 미술의 만남 '폴 고갱의 그림과 이진청·최서림의 시'가 수록돼 있다. 전해수 평론가는 예술산책 코너에서 '시인과 우편배달부 그리고 시 이야기'라는 글을 상재했다.

광주시인협회(회장 임원식)에서 발행하는 '광주시문학'(통권 28호)도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특집으로 제15회 광주시문학상 수상 작품과 올해의 작품상을 소개했다. 시문학상 수상작인 김관옥 시인의 '손저울', 조연화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박은영 시인의 '길'과 작품상인 권자현 시인의 '4월, 슬픈 그날'과 심사평이 실려 있다.

회원들의 1년을 결산하는 작품들도 다수 수록돼 있다. 고윤자, 이성자, 정광웅, 정혜진 시인의 동시와 김석권, 노창수, 최정숙 시조시인의 시조가 실려 있다. 시는 강만, 공옥동, 김중, 박후식, 백수인, 손광은, 이창민, 전원범 정형택 시인이 각각 자작시를 게재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테너 윤병길 독창회 내일 유·스퀘어 문화관

테너 윤병길 독창회가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아, 떠오르라, 태양아여!', 비제의 '카르멘' 중 '꽃노래', 푸치니의 '마술피리' 중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인', '아름다운 머리카락의 처녀들 중에서' 등 오페라 아리아들로 구성됐다. 피아노는 전남대학교 문헌악 교수가 맡는다.

테너 윤병길은 경희대학교 성악과 졸업 후 파우스트 토레프란카 국립음악원 성악과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태리 로마 A.I.D.M 국제아카데미에서 마에스트로 스테판 크라멜와 오페라 스코어 과정을 수료, A.M.I 국제 아카데미 오페라 최고 연주자과정을 수료했다.

국내 데뷔 무대로 예술의전당 주최 오페라 '투



란도트' 공연 이후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필리앗지', '박쥐' 등에 출연했다. 국립오페라단 '송년 갈라 콘서트', 베토벤 심포니 제9번 독창자, 베르디 레퀴엠 독창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석 2만원 (학생 50%할인) 문의 010-2680-0600.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겨울이야기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1.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